

# 산업보건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동부 장학금 제도가 폐지된다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백 남 원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의 장학금에 의해서 영국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특히 그들의 학문에 대한 태도, 영국인의 정직성 등은 필자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우리가 극심하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영국에 대하여 평생토록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며칠전 일간지에서 문득 영국문화원의 '장학생선발 공고'를 읽을 수 있었다. '아직도 그 장학제도는 여전하구나.....' 생각하면서 많은 감회를 느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확한 data'를 원하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업주는 우선 자기 사업장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싫어해 정확한 자료보다는 과소 평가 또는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고, 노조측은 아직도 환경을 위험수당과 결부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서 정확한 자료보다는 과대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떠한가? 정부에는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어떠한가? 이들은 위의 세 부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이들도 많다. 산업보건을 산업보건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보건분야가 발전하려면 산업보건은 산업보건전문가에 의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산업보건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 경영측, 노조측 및 정부측에 모두 전문가가 있어서 주도해야 한다. 미국 OSHA는 초창기에 저명한 산업보건학 교수인 Morton Corn 박사를 초빙하여 기초를 다졌고 지금도 수많은 산업보건전문가가 있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노조(UAW)에서는 산업보건전문가 Mirer 박사가 수십 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구미의 대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영차원에서 산업보건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세 부분에서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용기 있게 제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원래 산업보건분야는 Harvard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시작되었고, 대학원과정에 속한다. 학부에서 의학이나 자연과학을 마친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산업보건을 공부한다. 전문대학 출신자들이나 학부출신자들은 전문가로서의 학력과 경력이 충족될 때까지는 산업보건전문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많은 수련을 해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고, 노사간에 중립을 지키고 동시에 근로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원진레이온 직업병이 발견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과연 누가 발견했는가? 수년 전 모 대기업에서 발견된 2-Bromopropane 중독사건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일이었다. 누가 발견했는가? 우리나라의 용기 있는 산업보건전문가들이 발견했다.

10여 년 전 노동부 '직업병예방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 산업보건분야의 후진성을 절감하고 특히 전문가의 부족이 절실함을 감안하여 전문가 양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장학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착상이었다. 수많은 우리나라 대학원 학생들이 이 장학금의 도움으로 석사, 박사가 되어 국내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음은 매우 기쁜 일이다. 또한 소수이지만 몇 명은 외국에 유학하여 산업보건의 첨단분야를 연구하고 귀국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보건분야는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주, 노조, 정부 등 어느 부류에도 휩쓸리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웬일인지 금년도에 입학한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은 노동부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풍문(?)에 의하면 앞으로 그 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관계되는 학회에서도 모르고 있고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대학에서도 모르고 있다. 10여 년 전 '직업병예방기획단'에서 심사숙고 끝에 마련한 이 제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이 제도는 계속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속담, '十年之計 莫如植樹, 百年之計 莫如養人' 이 생각한다. ㉔